

일개 대학 대학생들의 성 지식, 태도 및 경험에 관한 조사 연구

한 경 순* · 함 미 영**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라 인간 의식 구조는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고유의 생활 양식과 전통적인 가치 체계는 붕괴되고 새로운 행동 양식과 가치 체계의 다원화가 나타났으며, 그 중 가장 많은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성적 행동을 들 수 있다. 일간에는 오늘날은 성의 개방화 시대라고 하기도 한다. 그렇듯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성에 관한 사회 현상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다양한 매스 미디어에 의한 성 정보와 성 환경이 범람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가치관은 혼란하게 되었다(이광자, 1990).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문화 변화를 가장 민감히 받아들이는 청소년은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경계적인 시기에 있다. 이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안정과 불균형이 심하며(함종환, 1982), 모든 행위가 부자연스럽고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때가 많아 스스로 갈등을 많이 하게 된다(김제한, 공석영, 김충기, 1980). 청소년기를 학교 제도와 관련시켜 볼 때 청소년 전기는 12세에서 15세까지, 청소년 중기는 16세에서 18세, 청소년 후기는 19세에서 22세로 발달 단계를 분류할 수 있는데(김제한 외, 1980), 청소년 후기에는 어느 정도 자신의 가치관과 의식이 혼란과 혼동의 시기를 거쳐 안정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를 교육제도와 연관시킬 때 주로 대학시절로 생각할 수 있으며, 대학이라는 곳은 최종적인 교육기관이다. 초, 중, 고등학교 과정과는 달리 대학생들은 자기의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회 활동을 시작과 더불어 폭 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윤기현, 1993).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의 조사(1991)에 따르면 임신 중절 받은 여성 중에 미혼이 1/3을 차지하며, 이 중에서 25세 이하가 85%, 두 번 이상 가운데 미혼이 50%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쉽게 접하게 되는 성 경험을 할 수 있는

* 신홍대학 간호과 조교수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이들이 청소년 후기에 있는 대학 재학 연령임을 고려할 때, 대학생들의 이성에 대한 관심과 태도, 성에 대한 지식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성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여 무지에서 비롯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박영신, 1988). 오랜 유교 문화권에 있어 왔던 폐쇄적인 성 윤리관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의 성교육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성교육에 대한 인식 또한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더불어 임시 위주의 교육제도, 성교육 내용의 불균형 및 제한성, 전문 지도자 부족, 교육자료 빈곤으로 적절히 교육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이명화, 1993). 중학교에서는 53.6%, 고등학교에서는 74%가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양성숙, 1992), 성교육 내용은 표면적, 추상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일부 대학에서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보건학, 심리학, 사회학, 여성학 내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어 그 교육의 정도는 표피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성 정체감의 혼돈 시기로부터 완성되어야 하는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은 자신의 성과 성 건강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기 관리 능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중, 고등 교육 과정에서 부족했던 성교육 부분을 대학 교육에서 보충하기 위한 성 관련 교과 개설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방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지식, 태도 및 경험에 대한 실태를 조사 연구하여, 성교육에 대한 앞으로의 학생 지도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삼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개 대학 대학생들의 성 지식, 태도 및 경험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들의 성 지식, 태도 및 경험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다.

3. 용어의 정의

1) 성 지식

건강한 지식인으로 알아야 하는 성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성생리, 생식생리, 피임 및 성병에 관한 10개 영역으로 구성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이다. 측정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에 대한 지식이 높으며 점수가 낮으면 성 지식이 낮은 것으로 보았다.

2) 성 태도

다양한 성 활동에 대한 개인의 편안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에 대한 관심, 성 문제 고민, 성 지식원, 성 상담자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뜻하는 16개 영역으로 측정한 뒤, 측정한 각 문항을 조사 분석한 것을 의미한다.

3) 성 경험

성에 대한 사상, 감정, 이론, 견해, 경험 등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자위행위, 키스, 성교 및 친구들의 성 경험에 관한 13개 영역으로 측정한 뒤, 측정한 각 문항을 조사 분석한 것을 의미한다.

II. 문헌 고찰

1. 성의 개념

성(sexuality)은 생물학적인 차이의 성별을 지칭하는 성(sex), 그리고 이 성별에 따라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차이와 차별을 내포하는 성(gender)과는 달리, 성교 및 다양한 성적 표현과 행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성관계를 말한다(이영자, 1991). 성(sexuality)이란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라틴어의 ‘섹서스

(sexus)’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자른다’ 또는 ‘나눈다’ 뜻의 세고(seco, cut)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다. 우리에게는 섹스(sex)와 젠더(gender)라는 단어들이 단순히 성이라고 번역되지만, 성이라는 글자가 지니는 원래의 이미는 마음과 몸의 양면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Ford, 1980). 또한 성이란 창조적이며 생산적이고 성에 대한 욕구가 없었다면 인류사회는 발전,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다(안재정, 1983). 따라서 성은 금기, 경멸, 수치로 취급되기보다는 오히려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성이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혹은 그 사회 환경과 성별에 의해서 그 인식과 개념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다. 그리고 성이란 사람과 사물의 본 바탕인 만류의 본능 중 하나로써 남성, 여성, 중성, 동성 등 생리적 구분의 의미만이 아니라 천성, 기질 등 내면적 심리상태까지 포함해서 의미한다고 했다. 인간은 출생시부터 모든 동물과 달리 남·녀로 구분된 성적 존재로 태어난다. 그러므로 인간의 경우에는 동물과는 달리 생물학적인 성차 이외에 성특성의 의미가 중시되며 남녀간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성역할이 구분되는데 성역할의 주체자는 자신의 내적인 성 정체감에 따라 외적인 행위를 달리 하게 된다(Goldman, 1982). 특히 인간의 성적 동기는 심리적인 현상으로서 개인 혼자의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사회적 욕구로서 인간관계의 문제이다(장순복, 최연순, 김혜숙, 1992). 그러므로 인간의 성은 생명과 사랑을 창조하는 기본적인 원천으로 인간행위의 모든 특성 속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격체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이란 부정적인 것이기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2. 성 지식, 태도 및 경험

성 지식은 생식기 생리, 성 행동, 수정, 임신, 자위, 성병, 피임 등 성과 관련된 항목들에 관한 것을 아는 것으로 문헌들을 살펴보면, 대

학생들 스스로 성에 관한 지식수준이 보통정도 알고 있다 50.25%, 잘 알고 있다 37.77%, 잘 모른다 11.98%로 대체로 잘 알고 있다고 지각하였으며(성한기, 1996)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이성의 성장인 월경이나 초경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다(김영숙, 1981). 또한 성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성행위나 성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유가현, 1990). 반면 성 태도라는 용어는 그 개념의 근거를 태도라는 말에다 둔 것으로서 성가치관이라는 말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 말이다. 즉 태도라는 말은 심리적 대상에 대해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 정서적 경향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 태도라는 용어는 성에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 및 행동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성 태도란 후천적인 학습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조진규, 1993). 특히 사춘기에 형성된 성 태도가 일생 동안의 성 태도를 좌우하며 사춘기의 성 태도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성 지식을 얻는 시기와 범위, 영향을 준 사람의 태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였다(Hurlock, 1973).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 성별, 주거상태, 종교, 인종 등이었다(Coleman-Kenney, 1992; 김주연, 1993). 이와 관련된 성 관계의 남성주도에 대한 태도는 중립이거나 잘 모르겠다 32.11%이며 다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문화에 대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55.35%이고 바람직하다 16.56%로 나타났다(성한기, 1996).

또한 성 경험에 있어서 성교 경험은 학년, 연령, 성별, 부모 생존 여부, 주거형태, 어머니의 교육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성교 경험이 많았고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교 경험이 훨씬 많았다(박영신, 1988). 한편 미국의 경우 최초의 성교 경험 연령은 9세에서 18세로 평균 12.9세로 나타났으며(Moody, 1990) 우리 나

라 경우는 성교를 경험한 남학생의 88.8%가 15~19세에, 여학생의 46.6%가 15세 미만에서 첫 성교 경험을 했다(이명화, 1993). 성교 대상에 있어서 어린 시절 연상의 여성과 성 경험을 한 남자 대학생은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삶에 있어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경험이 그들 생활에 있어 대인관계와 성적 적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되었다(Fishman, 1990). 그리고 성 경험에서의 자위행위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위 경험이 많고 더 일찍 시작하였다. 가정경제 상태에 따라서는 생활이 어려울수록 자위행위 경험이 많았다(성영자, 1984; 김주연, 1993). 한편 키스경험과 성교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성에 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지각하였으며 대체로 성에 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이 성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한기, 1996).

이와 같은 연구 내용으로 보아 성 지식, 태도 및 경험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느 한가지 요인보다는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인 환경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본 연구는 성 지식, 태도 및 경험에 관한 실태 및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들의 성 교육 증진을 위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질문지법을 이용한 조사 연구로 연구 대상은 경기도 의정부시 일개 대학을 선택하여 편의 추출하였다. 추출된 학생 수는 316명이었으며, 남학생 63명, 여학생 253명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180명, 2학년 105명, 3학년 31명이었다.

2.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성 지식, 태도 및 경험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지의 작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문헌 고찰을 통해 본 연구 목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발췌하여 내용별 범주화를 시켜 문항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문항에 대해서 연구 도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간호학 전공 교수 2인과 협의하여 도구의 내용 및 구성 타당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였다. 연구 도구의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학년, 학과, 종교, 나이, 거주지 등을 측정하여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2) 성 지식

생식 생리에 관한 문항 4개, 성생리에 관한 문항 4개, 성병에 관한 문항 1개, 피임에 관한 문항 1개 등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알고 있는 정도에 대하여 “잘 안다” 인 경우 3점, “조금 안다”는 2점, “모른다”는 1점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성 지식의 점수는 0점에서 30점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전 조사를 통한 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Chronbach's alpha는 .6496 이었고, 본 조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Alpha = .9256 이었다.

3) 성 태도

성 태도 측정은 성에 대한 관심 시기에 관한 문항 1개, 성 문제에 관한 문항 5개, 성 지식 습득 경로에 대한 문항 1개, 성행위 및 충동에 관한 문항 4개, 결혼 및 순결에 관한 문항 3개, 성교육에 관한 문항 1개 등의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 특성을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4) 성 경험

성 경험에 대한 측정은 자위행위에 관한 문항

3개, 성행위에 관한 문항 6개, 성 관계, 성 경험 대상자 및 성 상담자에 관한 문항 4개 등의였으며,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 특성을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 자료 수집 기간은 1999년 3월 22일부터 5월 7일 까지 이었으며 자료 수집을 위해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 한 일개 대학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 (1) 연구자가 각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연구원에게 교육한 후 선정된 각 학과 연구원이 연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뒤 대상자와 협조를 구한 후 설문 일시를 결정하였다.
- (2)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연구원에게 교육한 후 연구원이 연구 대상에 연구 목적을 설명한 뒤 협조를 구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 (3) 공과계열, 보건계열 및 예능계열 대학생들에게 35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316부를 회수하였다. 회수율은 90.3%이었으며, 그 중 분석에 사용될 수 없는 불완전한 34부를 제외한 316부가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2) 분석 방법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2) 성 지식, 태도 및 경험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의 차이, 성 경험에 따른 성 지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경기도 의정부시내 소재한 일개 대학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 기간은 1999년 3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이었다. 응답한 대상자 316명의 학생 중 남자 63명(19.9%), 여자 253명(80.1%)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180명(57%), 2학년 105명(33%), 3학년 31명(10%)이었으며, 학과별로는 공과계열 35명(11%), 보건계열 197명(62%), 예능계열 87명(24%)이었다. 나이는 주로 19세에서 23세가 237명으로 전체의 75.3%차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28세 이상도 21명으로 6.6%를 차지하였다. 남자는 20세가 21.2%로 가장 많았고, 여자의 경우도 20세가 3.8%로 가장 많았다. 종교로는 기독교 39.6%, 천주교 10.4%, 불교 10.4%, 무교 38% 순이었다.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대상자의 84.5%가 자택이었으며, 다음으로 자취(9.8%)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다<표 1>.

2. 대학생들의 성 지식, 태도 및 경험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16		
성 별		남 자(%)	여 자(%)	Total(%)
학 년	1학년	54(17)	126(40)	180(57)
	2학년	9(2.9)	96(30.1)	105(33)
	3학년	0(0)	31(10)	31(10)
학 과	공과계열	26(8.2)	9(2.8)	35(11)
	보건계열	6(1.9)	191(60.1)	197(62)
	예능계열	31(9.8)	53(17.2)	84(27)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N=316

성별		남자(%)	여자(%)	Total(%)
종교	기독교	17(5.4)	108(34.2)	125(39.6)
	천주교	6(1.9)	27(8.5)	33(10.4)
	불교	6(1.9)	27(8.5)	33(10.4)
	무교	30(9.5)	90(28.5)	120(38)
	기타	4(1.3)	1(0.3)	5(1.6)
나이	19	12(4.1)	28(8.9)	40(13)
	20	12(3.8)	67(21.2)	79(25.0)
	21	10(3.2)	45(14.2)	55(17.4)
	22	2(0.6)	40(12.7)	42(13.3)
	23	3(0.9)	18(5.7)	21(6.6)
	24	1(0.3)	17(5.4)	18(5.7)
	25	2(0.6)	8(2.6)	10(3.2)
	26	9(2.8)	10(4.4)	19(6.0)
	27	5(1.6)	6(1.9)	11(3.5)
	28 이상	7(2.2)	14(4.4)	21(6.6)
거주지	자택	56(8.2)	211(76.3)	267(84.5)
	자취	2(0.6)	29(9.2)	31(9.8)
	하숙	0	1(0.3)	1(0.3)
	친척집	0	9(2.8)	9(2.8)
	기숙사	3(0.9)	2(0.6)	5(1.5)
	기타	2(0.6)	1	3(0.9)

1) 성 지식

대상자의 성 지식 점수는 최대 30점까지 나타났으며 남자 평균점수는 14.76, 여자 평균 점수는 20.17이었다. 응답 대상자의 영역별 성 지식 평점은 성 생리 7.39, 생식생리 7.91, 성 병 1.88, 피임 1.87로 나타났다<표 2>.

가장 평점이 높은 항목은 자위행위(2.05)이었고, 몽정과 월경(2.04), 유전학 및 유생학 (2.03), 성행45.6%, 위(1.98)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평점 항목으로는 성병에 대한 항

목으로 ‘조금 안다’ 45.6%, ‘모른다’ 31.1%를 나타내었다<표 2-1>.

2) 성 태도

(1) 성에 대한 관심 발현 시기

성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는 중학교 2학년 때가 18.7%로 가장 많았고, 다음 순위로는 고등학교 1학년(16.5%), 중학교 1학년 (12.3%)이었으며 성에 대한 관심 및 태도가 증가하는 시기는 전반적으로 사춘기 시기와 중

<표 2> 대상자의 영역별 성지식 평점

N=316

영역	문항수	평점	최소값	최대값
성생리	4	7.39	0	12
생식생리	4	3.91	0	12
성병	1	1.88	0	3
피임	1	1.87	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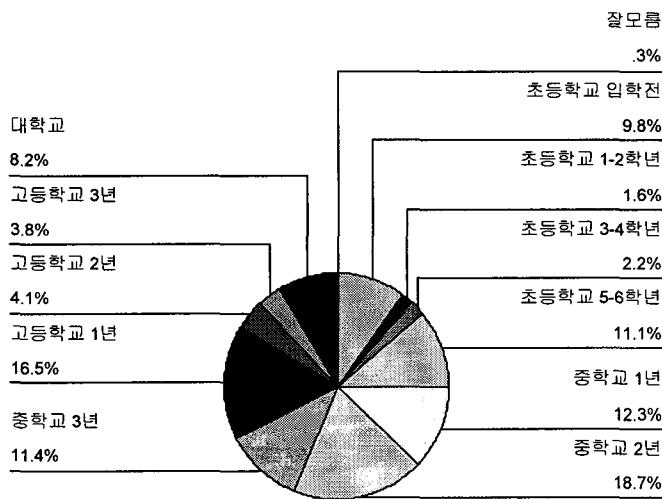
<표 2-1> 성 지식에 대한 세부 항목별 내용 분류

영역	항목		Total(%)	평점	표준편차	범위
	주 항목	소 항목				
애무하는 것	공정과 윤경	잘 안다	96(30.4)			
		조금 안다	128(40.5)			
		모른다	92(29.1)	1.65	0.90	0~3
성생리	성행위(성교)		316(100.0)			
		잘 안다	51(16.1)			
		조금 안다	139(44.0)			
자위행위	이성의 생식 구조	모른다	156(39.8)	2.04	0.87	0~3
			316(100.0)			
		잘 안다	55(17.4)			
수정과 임신	유전학 및 유생학	조금 안다	168(53.2)			
		모른다	93(29.5)	1.98	0.82	0~3
			316(100.0)			
생식생리	출산	잘 안다	85(26.9)			
		조금 안다	149(47.2)			
		모른다	83(25.9)	2.05	0.83	0~3
피임	성병 감염 및 예방		316(100.0)			
		잘 안다	50(46.0)			
		조금 안다	136(78.8)			
피임	성병 감염 및 예방	모른다	130(55.0)	1.19	0.88	0~3
			316(100.0)			
		잘 안다	62(19.6)			
성병	성병 감염 및 예방	조금 안다	134(42.0)			
		모른다	120(37.9)	1.84	0.88	0~3
			316(100.0)			
성병	성병 감염 및 예방	잘 안다	87(27.5)			
		조금 안다	132(41.8)			
		모른다	164(51.9)	2.03	0.87	0~3
성병	성병 감염 및 예방		316(100.0)			
		잘 안다	52(16.5)			
		조금 안다	133(42.1)			
성병	성병 감염 및 예방	모른다	131(41.5)	1.88	0.89	0~3
			316(100.0)			
		잘 안다	67(21.2)			
성병	성병 감염 및 예방	조금 안다	153(48.4)			
		모른다	96(30.4)	1.87	0.84	0~3
			316(100.0)			
성병	성병 감염 및 예방	잘 안다	74(23.4)			
		조금 안다	144(45.6)			
		모른다	98(31.1)	1.79	0.86	0~3
			316(100.0)			

복되는 초등학교 5-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이었다<그림 1>.

(2) 성 문제 경험 및 문제 해결 방안

성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한 경험이 있는 자는 61.1%로 그 중에서 남자 50.8%, 여자 63.6%가 경험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들의 고민내용은 이성교제(18.4%), 신체적 문제



<그림 1> 성에 대한 관심 발현

(17.1%), 성욕 및 성도덕(8.5%) 등이었으며, 고민내용이 복합적인 경우도 4.7% 되었다. 신체적 문제 내용으로는 남자의 경우 음경의 크기(44.4%), 여자의 경우 월경(40.1%) 및 유방의 크기(40.1%)가 주요 내용이었다. 또 고민 내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상담(17.1%), 책(13.3%), 무조건 억제(9.8%)로 해결해왔다. 성 문제에 대한 고민 부분 중 잘 모른다는 경우가 38.9%로 이는 올바른 성지식의 결여와 아울러 적극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었

다<표 3>.

(3) 성 지식의 습득 경로 및 성 문제 상담

대상자의 성 지식에 대한 습득은 친구 26.6%, 책이나 잡지 23.4%, 선생님 7.6%, TV나 라디오 7.6% 등의 순서로 성 지식을 얻고 있었으며 부모를 통한 성 지식 획득은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의 체계적인 성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표 4>.

<표 3> 성 문제 경험 및 문제 해결 방법

주 항목	항목		남	여	Total(%)	F	p 값
	주 항목	소 항목					
성 문제 고민 경험	있다		32	161	193(61.1)		
	없다		31	92	123(38.9)	50.569	0.000
			63	253	316(100.0)		
고민 내용	신체적 문제		9	45	54(17.1)		
	이성교제		9	49	58(18.4)		
	성욕 및 성도덕		9	18	27(8.5)		
	결혼		2	15	17(5.4)		
	임신		1	10	11(3.5)		
	성병(에이즈)		1	0	1(0.3)	1.472	0.226
	이상의 내용 모두		3	12	15(4.7)		
	기타		0	10	10(3.2)		
	잘 모름		29	94	123(38.9)		
			63	253	316(100.0)		

<표 3> 성 문제 경험 및 문제 해결 방법(계속)

주 항목	항목	남	여	Total(%)	F	p 값
주 항목	소 항목					
신체적 문제 내용	음경의 크기	4(44.4)	0	4(1.9)		
	치모	3(33.3)	3(6.7)	6(11.1)		
	월경	0	18(40.1)	18(33.3)	9.270	0.003
	유방의 크기	0	18(40.1)	18(33.3)		
	기타	2(22.2)	6(13.3)	8(14.8)		
	9(16.7)	45(83.3)	54(17.1)			
문제 해결 방법	상담한다	7	47	54(17.1)		
	책을 읽는다	3	39	42(13.3)		
	병원을 방문한다	1	6	7(2.2)		
	억제한다	7	24	31(9.8)		
	스포츠나 레이크레이션을 한다	1	2	3(0.9)		
	이성교제를 한다	4	4	8(2.5)	2.325	0.128
	술을 마신다	2	4	6(1.9)		
	자위행위를 한다	2	1	3(0.9)		
	이상의 내용 모두	5	5	10(3.2)		
	기타	2	16	18(5.7)		
잘 모름	29	105	134(42.4)			
	63	253	316(100.0)			

<표 4> 성 지식원

주 항목	항목	남	여	Total(%)
주 항목	내용			
성 지식 습득 경로	책이나 잡지	18	56	74(23.4)
	팜플렛	1	8	9(2.8)
	TV나 라디오	4	20	24(7.6)
	부모님	2	2	4(1.3)
	선생님	1	23	24(7.6)
	친구들	19	65	84(26.6)
	인터넷	3	1	4(1.3)
	이상 내용 모두	8	21	29(9.2)
	기타	2	9	11(3.5)
	잘 모름	5	48	53(16.8)
	63	253	316(100.0)	

성 문제 발생시 상담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나 실제로 상담을 가장 많이 한 상담자는 친구(50.0%)였으며, 어머니(13.6%), 형제 및 자매(13.3%)의 순으로 나왔다. 선생님은 1.3%를 나타내어 성 문제 발생시 학교내 선생님과의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 발생시 주위 가족이나, 동

료, 친구들과의 상담이 88.6%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문제를 숨기지 않고 누군가에게 의논하거나 해결하려는 학생들의 의지를 볼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학생들의 성 문제에 대한 관심과 상담에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표 5>.

<표 5> 성 문제 상담자

주 항목	항목	남	여	Total(%)
주 항목	내용			
발생시 상담자	아버지	2	7	9(2.8)
	어머니	1	42	43(13.6)
	형제 혹은 자매	4	38	42(13.3)
	선생님	29	4	4(1.3)
	친구	4	119	158(50.0)
	이상 모두	4	6	10(3.2)
	기타	0	10	14(4.4)
	잘 모름	9	27	36(11.4)
	63	253	316(100.0)	

(4) 성에 대한 관심 및 태도에 관한 기타 내용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연애 및 결혼 이야기를 하는 빈도를 보면 ‘가끔 한다’ 50.6%, ‘자주 한다’ 32.6%로 남녀 모두에게 연애 및 결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대학생들의 성행위에 대한 느낌에서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59%로 가장 많았고, ‘성스럽다’가 8% 이었다. 이를 볼 때 성행위 자체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자연스럽고 성스럽게 미화시키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었다. 결혼 전 순결 문제에 대한 문항에서는 남녀 모두 ‘키스정도는 괜찮다’가 33.5% 이었고, 반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21.9%였으나 ‘꼭 지켜야 한다’는 19.3% 이었다. 이는 급변하는 시대를 반영하는 듯 현재 남녀 대학생들의 순결 문제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교제를 하

면 결혼까지 생각하겠다’가 68.6%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학생들의 사고의 혼란으로 사료된다. Unisex에 대한 생각을 볼 때 ‘개인의 자유’가 69.9%를 차지하여 과거의 남성들의 남성성, 여성들의 여성성이 최근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성적 성장이 왕성한 시기의 남녀 대학생들의 성적 충동시의 해소방법을 볼 때 ‘그냥 침는다’가 25%를 차지하여, 궁정적인 해소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생들이 성교육에 대해 ‘받고싶다’가 67.3%로 바람직한 성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표 6-1, 6-2>.

3. 성 경험에 대한 태도 분석

(1) 자위 행위의 경험

자위경험 유무에 대하여 남자 60.3%, 여자

<표 6-1> 기타 내용

주 항목	항목	내용	남	여	Total(%)
학교에서 친구들 간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 빈도	말하지 않는다	7	7		14(4.5)
	가끔 말한다	37	123		160(50.6)
	자주 말한다	14	89		103(32.6)
	잘 모름	5	34		39(12.3)
성행위에 대한 느낌	63	253			316(100.0)
	성스럽다	8	17		25(7.9)
	추하다	3	11		14(4.4)
	즐거움을 위한 방법	8	23		31(9.8)
	인간의 자연스런 과정	39	147		186(58.9)
	결혼 후에만 가능하다	2	39		41(15.0)
	잘 모름	3	16		19(6.0)
	63	253			316(100.0)
결혼 전 순결 문제	남녀 모두가 꼭 지킨다	11	50		61(19.3)
	데이트 정도는 괜찮다	7	23		30(9.5)
	키스 정도는 괜찮다	14	91		106(33.5)
	매우 정도는 괜찮다	3	28		31(9.8)
	별로 중요하지 않다	24	45		69(21.9)
	잘 모름	4	15		19(6.0)
	63	253			316(100.0)
이성교제와 결혼	젊음을 즐겨볼 뿐	14	35		49(15.5)
	교제는 하되 결혼은 중매	3	23		26(8.2)
	교제 후 결혼	39	178		217(68.6)
	잘 모름	7	17		24(7.6)
	63	253			316(100.0)

<표 6-2> 기타 내용

주 항목	항목	내용	남	여	Total(%)
Unisex 풍의 스타일	남녀 단둘이 밤새우는 것에 대한 인식	나도 해보고 싶다	6	15	21(6.6)
		꿀불견이다	15	51	66(20.9)
		개인의 자유이다	39	181	221(69.9)
		잘 모름	3	5	8(2.5)
			63	253	316(100.0)
성적 충동 해소 방법	학교에서의 성교육	좋다	7	14	21(6.6)
		그럴 수도 있다	47	183	230(72.8)
		나쁘다	6	49	33(10.4)
		잘 모름	3	7	10(3.2)
			63	253	316(100.0)
		다른 일에 전념한다	22	99	121(38.3)
		자위행위를 한다	11	25	36(11.4)
		교제하는 이성친구 만난다	7	11	18(5.7)
		생각 없이 거리를 방황한다	3	6	9(2.8)
		일시적이므로 그냥 참는다	14	65	79(25.0)
		잘 모름.	6	47	53(16.8)
			63	253	316(100.0)
		받고 싶다	30	183	213(67.3)
		받고 싶지 않다	28	55	83(26.3)
		잘 모름	5	15	20(6.3)
			63	253	316(100.0)

20.6%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자위 행위를 경험한 학생 90명 중 그 빈도는 2~3회/달 43.4%, 1회 이하/달 29.0%, 2~3회/주 16.7%의 손으로 나타났다. 자위 행위 후의

심리 상태는 허탈감(42.2%), 죄의식(43.4%), 기분이 좋았다(4.4%), 기분이 나쁘다(6.7%)였다($p<.001$)<표 7>.

<표 7> 자위 행위 경험 및 느낌

주 항목	항목	남	여	Total(%)	F	p 값	
		소 항목					
자위 행위	경험 빈도	있다	38(10.3)	52(20.6)	90(28.5)	32.407	0.000
		없다	25(7.9)	201(63.6)	226(71.5)		
			63	253	316(100.0)		
행위 후 느낌		1달에 1회 이하	11	16	27(29.0)	15.869	0.000
		1달에 2~3회	11	28	39(43.4)		
		1주에 1회	5	3	8(8.9)		
		1주에 2~3회	10	5	15(16.7)		
		1주에 4~6회	1	0	1(1.1)		
			38	52	90(100.0)		
		죄의식이 들었다	3	35	38(42.2)		
		허탈감이 들었다	29	10	39(43.4)		
		기분이 좋았다	3	1	4(4.4)		
		기분이 나빴다	2	4	6(6.7)		
		기타	1	2	3(3.3)	48.974	0.000
			38	52	90(100.0)		

$p < .001$

<표 8> 키스 경험

주 항목	소 항목	항목		Total(%)	F	p 값
		남	여			
키스 경험 빈도	없다	31(49.2)	132(52.1)	163(51.6)		
	1~2회	5(1.7)	39(15.4)	44(13.9)		
	3~4회	3(4.8)	14(5.5)	17(5.4)	38.903	0.000
	5회 이상	24(38.1)	68(26.9)	92(29.1)		
주 경험자		63	253	316(100.0)		
	동성 친구	3	10	13(8.5)		
	이성 친구	22	103	125(81.8)		
	이성의 성인	3	1	4(2.6)		
	형제, 자매	2	4	6(3.9)	2.046	0.154
	친척	1	2	3(2.0)		
	기타	1	1	2(1.3)		
		32	121	153(100.0)		

p < .001

(2) 키스 경험

키스 경험의 횟수는 ‘없다’ 51.6%, ‘5회이상’ 29.1%, ‘1~2회’ 13.9%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주 경험자로는 이성 친구가 81.8%로 가장 많았고, 동성친구, 형제 및 자매, 친척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들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다($p<.001$)<표 8>.

(3) 성교 경험

성교 경험은 ‘없다’ 76.9%, ‘5회 이상’

11.4%, ‘1~2회’ 8.9%, ‘3~4회’ 2.8% 순서로 나타났으며, 남학생 46%, 여학생 17.4%가 성교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에게 유의하게 경험 울이 높았다($p<.001$). 성경험 대상자로는 친구(65.6%), 학교 선생님(12.3%), 선후배(9.6%), 친척(5.5%), 처음 본 사람(2.7%), 윤락녀(2.7%) 순으로 나타났다. 성경험을 가장 많이 한 시기로는 봄(31.5%)이었으며, 성경험 후 대상자가 느끼는 생각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하겠다’ 38.4%로 후회스러워하는 감정 표현을 읽을 수 있었으나 성에 대한

<표 9> 성교 경험

주 항목	소 항목	항목		Total(%)	F	p 값
		남	여			
성교 경험	해본 적 없다.	34(54.0)	209(82.6)	243(76.9)		
	1~2회	10(15.9)	18(7.1)	28(8.9)	16.79	.000
	3~4회	2(3.2)	7(2.8)	9(2.8)		
	5회 이상	17(2.7)	19(7.5)	36(11.4)		
성경험 대상자		63(100.0)	253(100.0)	316(100.0)		
	친구	16	32	48(65.6)		
	학교 선생님	1	8	9(12.3)		
	선, 후배	6	1	7(9.6)		
	친척	2	2	4(5.5)	20.81	
	처음 본 사람	2	0	2(2.7)	8	.000
	윤락녀	2	0	2(2.7)		
	기타	0	1	1(1.4)		
		29	44	73(100.0)		

<표 9> 성교 경험(계속)

주 항목	항목	남	여	Total(%)	F	p 값
성경험 대상자	친구	16	32	48(65.6)		
	학교 선생님	1	8	9(12.3)		
	선, 후배	6	1	7(9.6)		
	친척	2	2	4(5.5)	20.818	.000
	처음 본 사람	2	0	2(2.7)		
	윤락녀	2	0	2(2.7)		
	기타	0	1	1(1.4)		
		29	44	73(100.0)		
성경험 시기	봄	8	15	23(31.5)		
	여름	6	15	21(28.8)		
	가을	1	4	5(6.8)	38.303	.000
	겨울	11	10	21(28.8)		
	수시로	3	0	3(4.1)		
		29	44	73(100.0)		
성경험 후 생각은?	다시 경험하고 싶다.	15	8	23(31.5)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하겠다.	5	23	28(38.4)		
	피해 의식에 사로 잡혀 있다.	1	2	3(4.1)	13.298	.000
	이미 저질러진 일이다.	5	7	12(16.4)		
	털어놓고 의논하고 싶다.	3	4	7(9.6)		
		29	44	73(100.0)		
만약 성경험을 한다면 의논 대상자는	친구	47	212	256(81.9)		
	학교 선생님	7	63	20(6.3)		
	아버지	4	4	8(2.5)		
	어머니	2	11	13(4.1)		
	형제	0	9	9(2.8)	3.814	.052
	친척	0	1	1(0.3)		
	선배	1	0	1(0.3)		
	기타	2	3	5(1.6)		
		63	253	316(100.0)		

p < .001

적극적인 호기심을 나타내는 ‘다시 경험하고 싶다’ 역시 31.5%를 나타내었다. 성경험 시 의논 대상자로 생각하고 있는 대상으로는 친구가 81.9%로 가장 많았고, 학교 선생님(6.3%), 어머니(4.1%), 형제(2.8%), 아버지(2.5%) 순서로 나타났다(p< .001)<표 9>.

(4) 친구들의 성 경험

친구들의 성 경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에 서 ‘있다’ 69.9%, ‘없다’ 14.6%, ‘잘 모르겠다’ 15.5%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친구들에서 유의하게 경험율이 높았다(p<.0001). 성경험의

주된 동기는 ‘서로 사랑하므로’ 24.4%, ‘호기심’에서 15.2%, ‘강제로 끌려서’ 13.6%, ‘욕구불만 해소’로 9.2%, ‘꾀임에 빠져’ 7.6%로 나타났으며, 경험 후의 감정상태변화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27.5%로 나타나 성에 대한 책임의식에 대해 문제 의식이 없음을 알 수 있었던 반면 26.3%가 ‘후회한다, 죄악으로 느낀다고’ 했으며, ‘자랑으로 여긴다’가 8.9%로 나타나 신중한 행위가 아닌 단지 보이고 싶은 충동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알 수 있었다(p<.001)<표 10>.

<표 10> 주위 친구들의 성경험

주 항목	항목	남	여	Total(%)	F	p 값
주 항목	소 항목					
친구들의 성경험	있다.	51(81.0)	170(67.2)	221(69.9)		
	없다.	2(3.1)	44(17.4)	46(14.6)		
	잘 모름.	10(15.9)	39(15.4)	49(15.5)	3.633	0.058
		63(100.0)	253(100.0)	316(100.0)		
친구의 성경험 동기	강제로 끌려서	11	32	43(13.6)		
	꾀임에 빠져서	6	18	24(7.6)		
	호기심에서	12	36	48(15.2)		
	욕구불만 해소로	14	15	29(9.2)	0.342	0.559
	서로 사랑하므로	8	69	77(24.4)		
		51	170	221(100.0)		
친구의 성경험후 감정상태변화	죄악으로 느낀다	8	32	40(12.7)		
	후회한다	4	39	43(13.6)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8	15	23(7.3)		
감정상태변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21	66	87(27.5)	8.853	0.003
	자랑으로 여긴다	10	18	28(8.9)		
		51	170	221(100.0)		

p < .001

V. 논 의

성 지식 점수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성 지식 점수가 높았으며 지식 영역 가운데 성 생리에 대한 지식 점수가 높았다. 이 결과는 이인숙(1994), 이은정(1990)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로 성비의 편차와 성교육의 기회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많이 얻게 되었던 현실이 변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 생리에 대한 지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수정과 임신, 출산, 피임, 성병 감염 및 예방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교육보다는 과학적 근거 없이 오가는 주변의 경험담에서의 성 지식 습득 경로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교육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가 이를 지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성에 대한 관심 발현시기는 중학교 2학년으로 이인숙(1994), 성영자(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가 바로 중학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시기에 성교육을 정확히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또한 성 문제에

대해 여자가 남자 보다 고민을 많이 하였으며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상담 17.1%, 책 13.3%로 김주연(1993)의 책, 자위행위, 억제 등의 순서로 나타난 것과는 차이를 보여 긍정적인 해결방법이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 지식 습득 경로로서 친구가 26.6%, 책이나 잡지가 23.4%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교육이 체계적이지 못한 현실에서 당연한 응답이라고 보면 이러한 결과는 김주연(1993)의 연구 결과에서 성 지식의 습득경로로서 책이나 잡지가 37.4%, 친구 21.6%로 나온 것에 비교해 볼 때 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점차 개방적으로 생각하여 타인과 의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성 지식 습득경로로서 전문서적을 참고로 한 경우의 성 지식 점수를 측정해 보는 일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성 태도의 혼전 순결 문제에서 남녀 비율을 보면 꼭 지킨다는 각각 3.48%, 15.8%이었으며 또한 여학생의 32.4%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이성 교제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여성이 56.3%로 남성이 12.3%에 비해 월등히 높아 아직도 남성 위주의 봉건적인 성 윤

리가 잔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여성들에게만 순결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성규범의 제시 및 성교육의 기회부여가 여성에 비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성 경험에 있어 남학생의 자위행위가 60.3%, 여학생이 20.6%로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여학생들이 자위를 비정상적인 행동이라 생각하므로 그러한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김주연(1993)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88.4%, 여학생의 12.8%가 자위경험이 있었다는 결과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된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성교 경험 후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28%를 차지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성교 경험시 의논 대상자로는 친구가 81.9%로 가장 많아 가까운 타인과의 개방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성 태도, 경험을 파악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개방적이었으며 성 지식부분에서는 대체로 높았다. 그러나 여성의 생식구조, 출산, 피임, 성병 등에 대한 지식이 낮으며 친구들로부터 성 지식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앞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성교육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로 성 지식, 태도 및 경험간의 관련성을 명확히 비교하고 대상자의 성심리 측면을 깊이 있게 다루어 현실적으로 올바른 성태도를 이끌어 나가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 론

1. 요약 및 결론

1999년 3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약 45 일간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 지식, 태도 및 경험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성 지식 점수는 대체적으로 높았으며, 영역별 성 지식 평점은 성 생리, 생식생리, 성병, 피임 순으로 나타났다.
- 2) 초등학교 5-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시기 에 성에 대한 관심 및 태도가 증가하였다. 성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한 경험이 있는 자는 61.1%로 그 중에서 남자 50.8%, 여자 63.6%이 경험이 보고되었다. 이들의 고민 내용은 이성교제(18.4%), 신체적 문제(17.1%), 성욕 및 성도덕(8.5%) 등이었으며, 고민내용이 복합적인 경우도 4.7% 되었다. 신체적 문제 내용으로는 남자의 경우 음경의 크기(44.4%), 여자의 경우 월경(40.1%) 및 유방의 크기(40.1%)가 주요 내용이었다. 또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상담(17.1%), 책(13.3%), 무조건 억제(9.8%)의 순으로 나타났다.
- 3) 대상자의 성지식에 대한 습득은 26.6%가 친구를 통해, 23.4%가 책이나 잡지를 통해 성 지식을 얻고 있었으며, 선생님(7.6%), TV나 라디오(7.6%)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부모를 통한 성 지식 획득은 상당히 낮아 가정에서의 성교육의 부족현상이 절실히 게 나타났다.
- 4) 성경험이 없는 사람은 76.9%이었으며, 남녀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다 ($p < .001$). 대상자로는 친구가 65.6%로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이 경험한 시기는 봄(31.5%)이었으며, 성경험 후 느낌은 후회 스러워 하는 감정 표현이 38.4%로 나타났으며, 성경험시 의논 대상자로는 친구가 81.9%로 가장 많았다.

2. 연구의 제한점

- 첫째, 성에 대한 지식 측정 도구는 표준화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가 일개 대학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대학생에게

일반화 할 수 없다.
셋째, 연구 측정 도구가 각 항목에 맞는 비율
척도로 적용되지 않아 영향요인에 대한
파악이 불확실하였다.

3. 제 언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성 지식, 태도 및
경험을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 지식, 태도 및 경험과 관련된 영향 요
인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각 측정 도구 내용을 비율 척도로 세분화
하여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김영숙 (1981). 일부 사범대학생의 성교육에
대한 태도 조사. 중앙의학, 41(6), 371-376.
김제한, 공석영, 김충기 (1980). 청년 빌달 심
리학. 서울: 세광공사.
김주연 (1993).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인
식, 태도 및 성 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신 (1988). 일부 사범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
도와 성교육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53(6),
393-413.
성영자 (1984). 남녀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
식, 태도, 경험과 상관변인에 관한 분석 연
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한기 (1996).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관한 태
도와 행동.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논문집,
52, 07-229.
안재정 (1983). 고등학교 성교 세미나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윤기현 (1992). 성의 심리학. 서울: 성원사.

- 이팡자 (1990). 청소년과 성문제. 대한 간호,
29(5), 5-14.
이명화 (1993). 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 서울:
YMCA 청소년 상담실.
이영자 (1991). 자본주의와 성. 한국여성개발
원: 여성연구, 9(2), 86-87.
이은정 (1990). 고교생과 고교생 학부모의 성
지식 및 태도, 성교육 요구시기에 관한 조
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인숙 (1994).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
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순복, 최연순, 김혜숙 (1992). 미혼 근로여
성의 성 문제 분석. 최신의학, 35(8),
103-112.
조진규 (1993). 초등 학생의 성관련학습 및 성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학교보건체육연구소
지, 1(1), 138-139.
함종환 (1982). 청소년. 서울: 삼조사.
Coleman-kenny, K. R. (1992). The
influence of selected family background
variables in the reported sexual
attitudes, sexual behavior, and sex
education of traditional age college
students at two Universities in
southeastern pennsylvania.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Fishman, J. D. (1990). Prevalence, impact
and meaning attribution of childhood
sexual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male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Ford, B. (1980). Patterns of sex: The
mating urge and sexual future. New
York: St. Martin's Press.
Goldman, J. R. (1982). Children's Sexual
Thinking.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Hurlock, E. B. (1973). Adolescent

Development. McGraw-Hill Inc, Tokyo.
Moody, L. P. (1990).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ected situational and demographic variables influencing contraceptive use and pregnancy risk among adolescent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Abstract-

Key concept :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Experience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toward Sexual Behavior

Han, Kyoung Soon · Ham, Mi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for college students in oder to provide basic sex education information. For this study, the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316 students in the S college of Kyungi-do and collected during the period from March 22 to May 7, 1999. These results were analyzed

statistically by means of frequency, percentage, t-test, one-way ANOVA.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1. The level of sexual knowledge related to sex was relatively high. The level of subjects knowledge was sexual Physiology, Generation Physiology, Venereal Disease and Genital Physiology.
2. The sources of sexual knowledge were friends 26.6%, expert books 23.4%, teachers 7.6%, mass-media 7.6% of subjects obtained.
3. Only 19.3% of subjects thought that pre-marriage virginity should be kept and there was difference of concept between males(3.48%) and females (15.8%).
4. The experience of masturbation was 28.5% of total. The subjects that had not experienced kiss were 51.6% of total. The subjects that experienced sexual intercourse were 76.9% of total and there were difference between both sexes(male: 54.0%, female: 82.6%).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Shin Heung College

** Instructor,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